Global Trade Report 19-001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Global Trade Report

2018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개요

2 2018년 수출입 동향
2 지역별 수출 동향
3 품목별 수출 동향
3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Ⅱ.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4 중국
6 미국
8 베트남
10 일본
12 인도
14 ASEAN
16 EU
18 중남미
20 중동
22 CIS

24 *참고1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표)*
25 *참고2 : '18년(12월, 연간)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표)*
26 *참고3 : '18년(12월, 연간) 지역별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표)*
27 *참고4 :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그래프)*

* 12월 보고서는 **연간 누계치 기준으로 작성**함.

요 약

□ **(2018년 수출입 동향)** 수출 6,051.7억 달러(전년대비 +5.5%), 수입 5,351.7억 달러(+11.8%), 무역규모 1조 1,403억 달러로 사상 최대

< 12월(연간)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490**(8.8)	**5,737**(15.8)	**516**(3.8)	**484**(△1.3)	**6,052**(5.5)
수 입	**435**(13.6)	**4,785**(17.8)	**468**(11.4)	**440**(1.2)	**5,352**(11.8)
무역수지	**55**	**952**	**48**	**43**	**7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지역별 수출 동향)** 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全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對중국·미국·베트남·ASEAN·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 중남미(△1.1%)·중동(△11.3%) 지역은 감소

국가	호조품목	부진품목
중국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차부품·섬유류
미국	일반기계·반도체·차부품·석유제품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가전
베트남	반도체·디스플레이·섬유류·석유화학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가전
일본	석유제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류
인도	석유화학·철강·일반기계·반도체·석유제품	차부품·무선통신기기·가전·선박류
ASEAN	반도체·석유제품·디스플레이·석유화학	일반기계·철강·무선통신기기·자동차
EU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차부품·철강	선박류·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가전
중남미	철강·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선박류·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디스플레이
중동	철강·석유제품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차부품·가전
CIS	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석유화학·섬유류	철강·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 **(2018년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 자동차·철강·평판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은 감소, **반도체는 역대 최고**(1,267.1억 달러) **수출, 일반기계·석유화학은 사상 최초 500억 달러 수출 달성**(각각 535.7억 달러, 500.1억 달러)

□ **(2018년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모두 전년대비 수출 증가(각각 7.6%, 5.9%, 0.3%), 수출비중은 대기업(65.8%), 중소기업(18.9%), 중견기업(15.1%) 순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4%p 감소**

* 수출증감률(2018년, 전년대비) : 중소기업(7.6%) > 대기업(5.9%) > 중견기업(0.3%)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2017년(34.4%) → 2018년(34.0%)

I. 개요

□ **(2018년 수출입 동향)** 수출 6,051.7억 달러(전년대비 +5.5%), 수입 5,351.7억 달러(+11.8%), 무역수지 700억 달러 흑자 기록(10년 연속 흑자)

○ 무역규모 1조 1,403억 달러로 사상 최대(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수출은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달성(세계 6위 수출국 지위), 반도체(1,267.1억 달러)·일반기계(535.7억 달러)·석유화학(500.1억 달러)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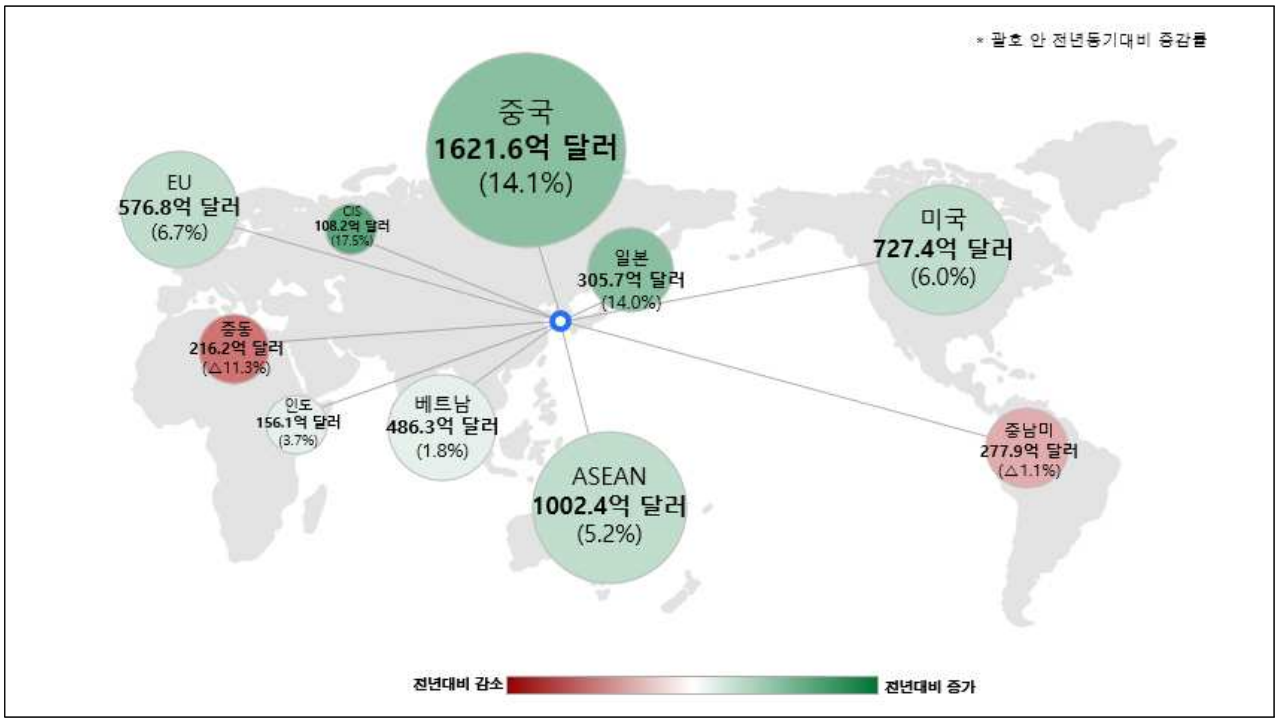
< 12월(연간)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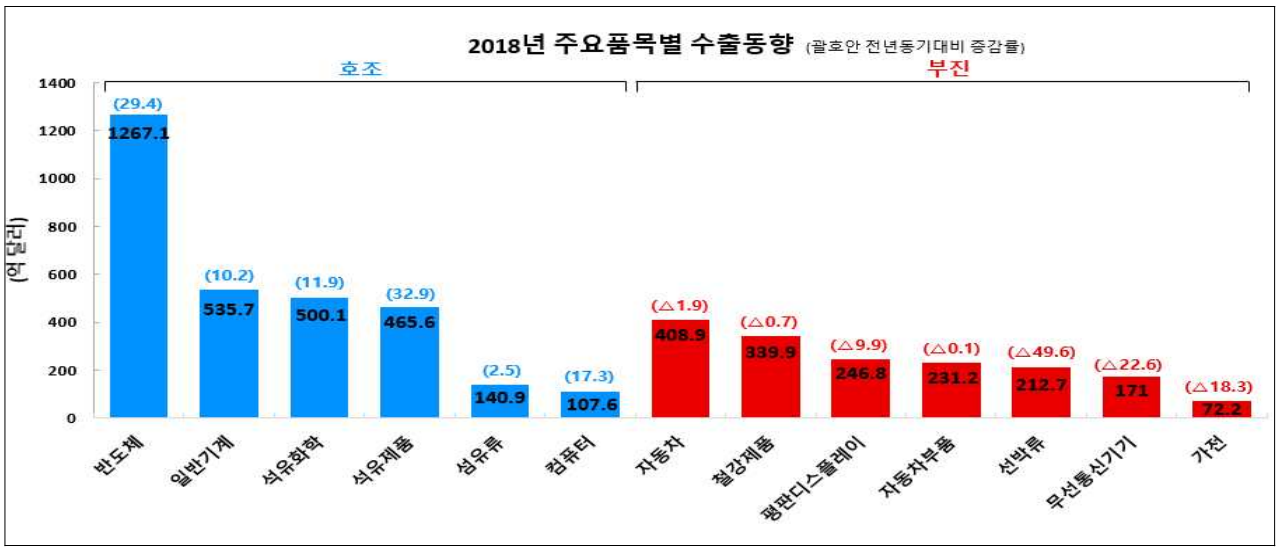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490**(8.8)	**5,737**(15.8)	**516**(3.8)	**484**(△1.3)	**6,052**(5.5)
수 입	**435**(13.6)	**4,785**(17.8)	**468**(11.4)	**440**(1.2)	**5,352**(11.8)
무역수지	**55**	**952**	**48**	**43**	**7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지역별 수출 동향)** 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全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對중국·미국·베트남·ASEAN·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 중남미 소폭 감소(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차부품 수출 부진) 및 중동 지역 두 자리 수 감소(경기불황 및 對이란 제제 등으로 자동차·일반기계 등의 수출 부진)



□ **(2018년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5개 품목은 두 자리 수 증가), 자동차·철강·평판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은 감소, **반도체는 역대 최고 수출 및 세계 최초 단일 부품 기준**(HS 4단위) **1,000억 달러 돌파, 일반기계와 석유화학은 사상 최초 500억 달러 수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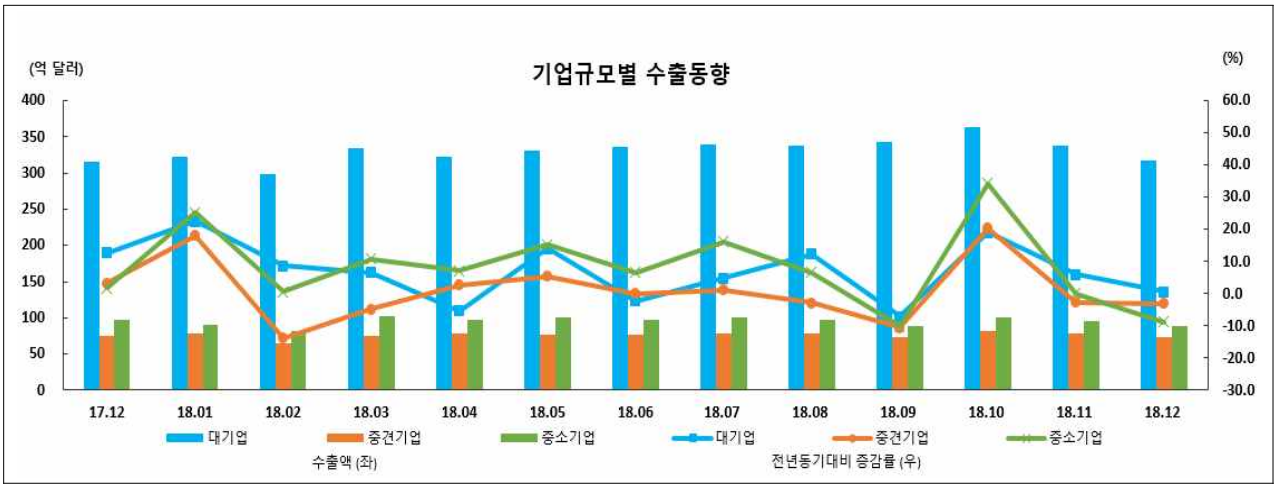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7.6%)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중견기업도 전년대비 수출 증가**(각각 5.9%, 0.3%), 수출비중은 대기업(65.8%), 중소기업(18.9%), 중견기업(15.1%) 순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4%p 감소**

* 수출증감률(2018년, 전년대비) : 중소기업(7.6%) > 대기업(5.9%) > 중견기업(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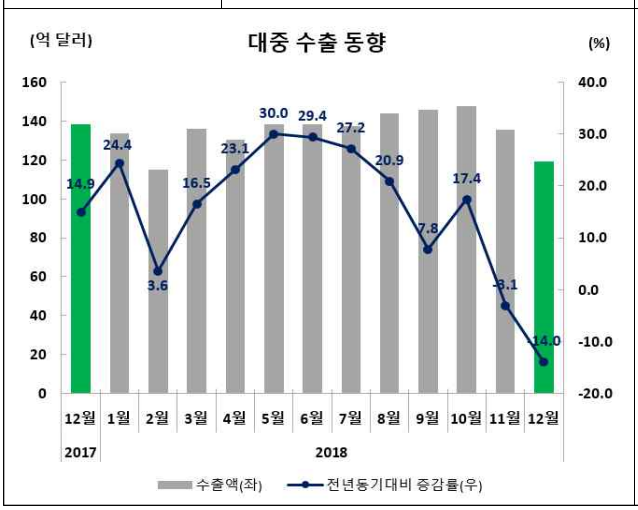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2017년(34.4%) → 2018년(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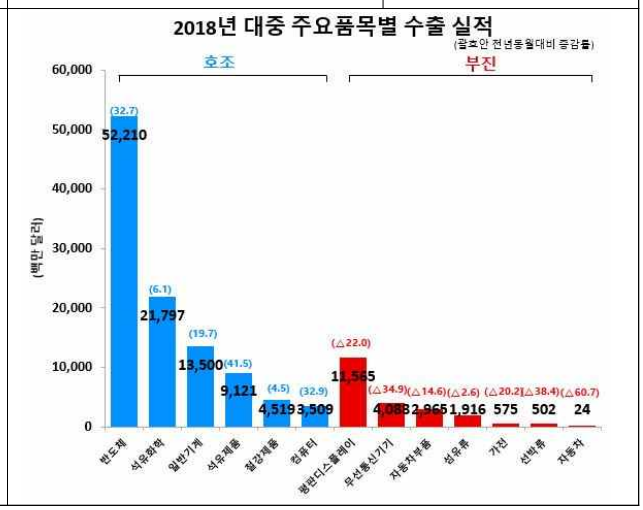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중 국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119.1(△14.0)	1,621.6(14.1)	26.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생산·소비·교역 하락 등 하방 리스크 존재하나 세제개편과 재정확대, 신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적 경제 성장세(2018년 GDP 증가율 6.6%)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철강·컴퓨터 수출은 증가,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섬유류·가전 등의 수출은 감소

○ **반도체(32.7%↑)** : 스마트폰 메모리 및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 확대, 5G·IoT·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신규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세를 견인

현장 정보

* 중국은 2017년 이래 집적회로 수입액이 2,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1위 수입품목 기록
.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를 설정, 최근 479억 달러 규모의 집적회로투자기금 조성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임.
. 향후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연평균 19.8%의 속도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약 1,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중국 IT 전문매체)

* 2018년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판매시장 1위는 한국, 2위는 중국, 3위는 대만 順이었으나 2019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 설비 판매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

○ **일반기계(19.7%↑)** : 중국 내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중국 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따른 자동화 수요 확대로 신규 기계류 수입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최근 중국 내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환경보호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어 산업구조 및 기계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 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진행으로 굴삭기 등 기계류 제품 수요 확대 (중국공업망)
  . 산업구조 조정이 지속 추진되면서 기업이 정부의 기술·자금 투자를 이용해 기존 낙후 설비 교체 및 신규 기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산업정보망)
* 중국 내 기업들이 다양한 기계품목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품질 및 핵심기능 부분에서 아직 해외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음. (중국기계망)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지리적 근접성과 품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NANJING KESEN KENEN ENVIRONMENT & ENERGY Co.,Ltd.)

○ **석유제품(41.5%↑)** : 중국의 경제성장세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2018년 석유제품 對中 수출 호조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에 기인했으며, 다만 10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출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임.
* 2019년 對中 석유제품 수출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로 수출 부진의 우려가 높음.
  . 중국 GDP 성장률 : ('18년) 6.6% → ('19년) 6.3% (중국사회과학원)

○ **평판디스플레이(22.0%↓)** :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 이어져 수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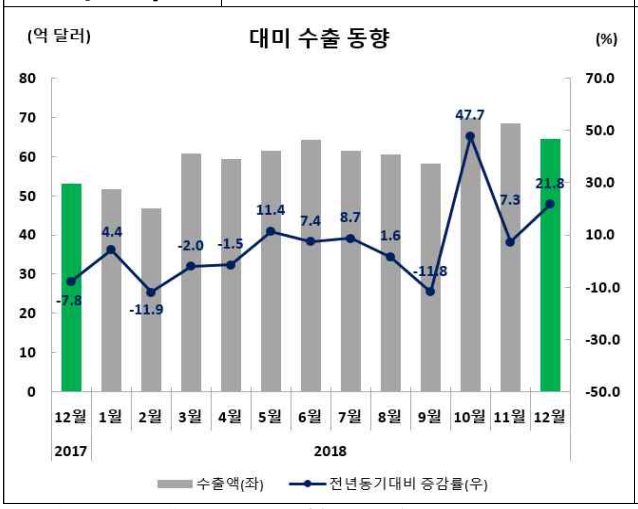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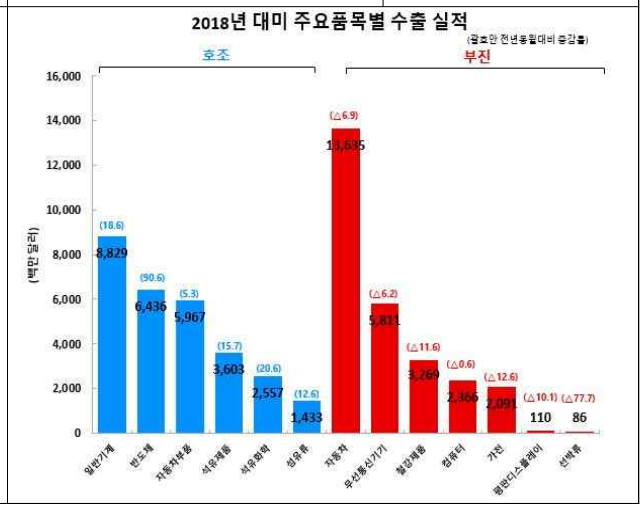
* 2018년에 중국 기업들이 패널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 이어짐.
  . 대표적으로 징둥팡(BOE)의 경우 10개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신규로 생산라인 3개를 건설 중임.
  . 2018년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 기업은 징둥팡과 화싱광뎬으로 각각 47%, 30% 증가했으며, 3분기 기준 출하량 Top3 기업은 BOE, LG디스플레이, Innolux(群创光电)이며 삼성과 화싱광뎬이 그 뒤를 이었음.
* 중국 기업들의 패널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중국의 생산 Capa가 전 세계의 40%에 달하고, 2022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群智咨询)

□ (특이동향)

○ 2019년부터 해외직구 규제 완화, 수출입 관세 인하(706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철폐·인하, IT제품 관세 인하, 94개 품목 수출세 잠정 철폐 등),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기술설비 수입세·증치세 감면, 톈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행

미 국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64.5(21.8)	727.4(6.0)	12.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미중 무역 분쟁, 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상황과 소비지출 증가, 재정지출 확대 등의 효과로 견고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8년 對미국 수출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일반기계 수출 증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6.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반도체·자동차부품·석유제품·석유화학 등 6개 품목의 수출 증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컴퓨터·가전 등의 수출은 감소

○ **일반기계(18.6%↑)** : 산업생산 증가 및 건설시장 성장, 對中 철강 고관세 부과 이후 한국산 기계류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2018년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기계류 수요 확대
* 對中 철강 고관세 적용 이후 건설 중장비 및 농기계 등 전방산업인 기계 산업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산 기계류 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수입처 발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기계류 수입도 증가 추세
.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기계는 수입을 통해 수급하는 등 미국 기계시장 흐름에 따라 한국산 기계류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arm Equipment)

○ **반도체(90.6%↑)** : IT기업들의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IoT·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2018년에는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모바일용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 증가세 지속
* 2019년에는 D램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 현상 심화로 반도체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D램 익스체인지)
  . D램 평균판매가격(ASP)은 '18.4분기에 전분기 대비 약 8% 하락했으나, '19.1분기에는 10% 이상 하락 전망
  .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서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컴퍼니(YMTC), 이노트론, 푸젠진화반도체(JHICC) 등 3대 메모리 업체들이 2019년 상반기에 대량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

○ **석유제품(15.7%↑)** : 미국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원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제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으며, 제품 단가 상승은 수출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음.
  . 휘발유(95RON) 가격은 전년대비 18.5%, 등유 30.6%, 경유 28.9% 상승
  . 단, '18.12월 국제 유가는 '17.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공급과잉 우려로 유가 추가 하락 가능
* 미국은 총원유생산량 11.7백만b/d를 기록함으로써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이미 세계 제 1위의 산유국으로 부상, 정유업체들의 가동률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미 에너지관리청) / (Buckeye Partners)

○ **자동차(6.9%↓)** : 미국의 금리인상과 고유가 영향으로 미국 시장 내 신차 판매·소비 부진하여 부품 수출도 감소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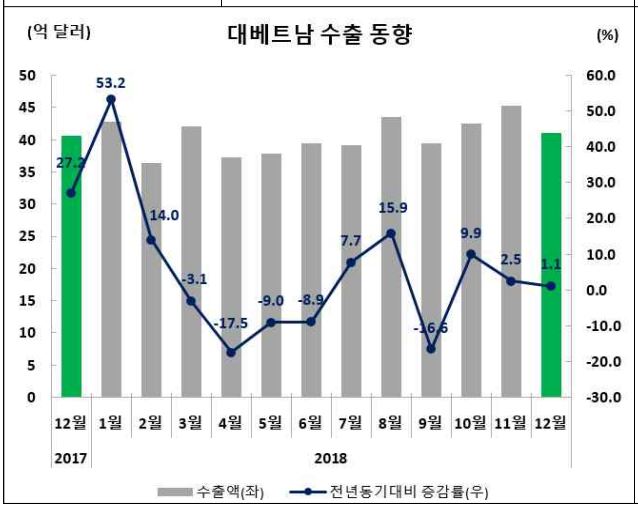
* 미국 시장의 신차 판매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인 판매 감소를 보였으며,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미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운 신차 구매보다는 리스가 막 끝나거나 3~4년 된 중고차량 구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에 2018년 중 4번째 금리인상을 발표했으며 2019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미국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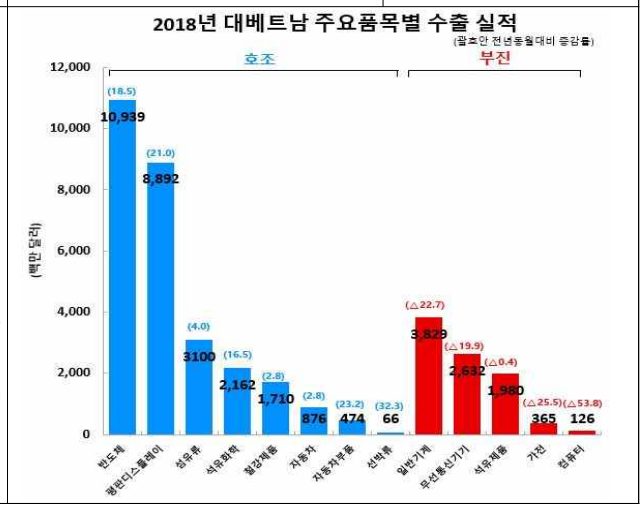
□ (특이동향)

○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협상 발효

* '18.1월 개정협상 개시 → '18.3월 '원칙적 합의' → '18.9월 서명 완료 → '19.1월 최종 발효

베트남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41.0(1.1)	486.3(1.8)	8.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수출지향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생산 호조, 견고한 내수시장 성장,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며(2018년 GDP 증가율 7.08%로 당초 목표치인 6.7% 상회,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 2018년 對베트남 수출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의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 달성했으나 수출증가율은 1.8%로 전년대비(46.3%) 크게 둔화

□ **(품목별 동향)**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섬유류·석유화학·철강 등 8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가전·컴퓨터 수출은 감소

○ **반도체(18.5%↑)**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메모리칩 수입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갤럭시 S9, S9+(2018년 상반기) 및 갤럭시 A7, A9(2018년 하반기)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현지 생산을 위한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AP)와 메모리 반도체 수입 수요가 증가함.

* 2018년 한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갤럭시 S9과 노트9) 판매가 부진하여 삼성전자 베트남공장은 중저가형 모델(갤럭시 A, J시리즈) 생산과 마케팅에 주력하는 중이며, 부품 벤더들도 이들 중저가 모델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임.

○ **평판디스플레이(21.0%↑)** :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OLED 패널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용 OLED 수요 증가 및 LCD 등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 수요 증가
  . OLED 對베트남 수출 : ('17년)47.7억 달러 → ('18년)63.7억 달러, OLED 총수출의 61.9% 비중 차지
* 특히, 주요 플래그십 제품(갤럭시 S9, 노트9, 아이폰 XS, XS Max 등)에 대화면 풀스크린 구현이 유리한 플렉시블 OLED 탑재로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함.
  .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OLED 패널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으며, 스마트폰용 OLED 시장 점유율은 2025년 7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IHS 마킷)

○ **섬유류(4.0%↑)** : 베트남의 對美 수출 호조에 따라 현지 의류 생산을 위한 직물 수입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한국의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 증가는 직물류를 중심으로 증가함.
* 베트남 의류 1위 수출국가인 미국 경기 호조로 대미 의류 수출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내 의류 생산 활동이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직물 수입이 증가함.
  . '18.1~11월 기준, 베트남의 의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했으며, 對美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한 124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관세청)
* 다만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섬유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직물 사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베트남 직물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일반기계(22.7%↓)** :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특히,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현지 생산을 위한 기계류 수출도 부진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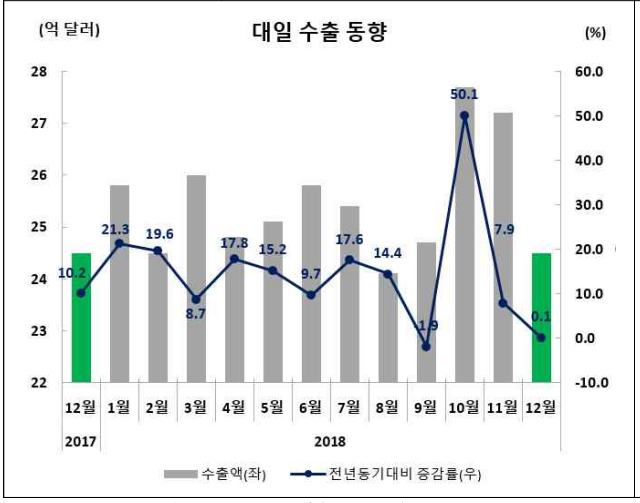
* '18.1~11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6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것임. 특히 對베트남 제조업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4.8% 줄면서 제조업 투자가 유발하는 기계류 수입 수요가 감소함.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베트남 내 건설·제조 경기 지속 호조세로 관련 건설기계 및 공작기계 수입 수요가 꾸준히 존재함. 그러나, 한국 기계류 수요는 주로 한국 기업에 한정되며,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가격경쟁력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임. (현지 기계류 수입 유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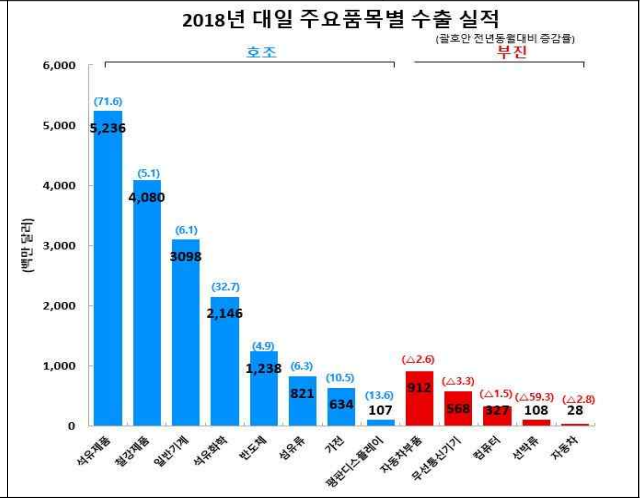
□ (특이동향)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8년 12월 30일 발효

*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섬유·의류·신발, 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출 시장 확대 기대되나, 베트남 시장 내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

일 본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24.5(0.1)	305.7(14.0)	5.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고용·소득 환경 개선, 양호한 기업실적,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확장국면 지속되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은 전년대비 둔화된 가운데(2017년 1.7%에서 2018년 1% 내외로 둔화 추정), 2018년 對일본 수출은 제조업 설비투자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일반기계·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두 자리 수 증가율(14.0%)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석유제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반도체 등 8개 품목의 수출 증가,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류·자동차 수출은 감소

○ **석유제품(71.6%↑)** : 일본 정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수출 단가 상승 및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인구감소와 자동차 연비 개선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를 예상하여 일본 정부는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을 실시
. 전국 주유소 수는 '94년에 비해 절반 감소, 휘발유 판매량은 '21년까지 10% 감소 예측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시장의 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촉진조치'를 조건으로 JXTG와 이데미츠, 쇼와셀석유의 합병을 승인
. 이데미츠 흥산(모회사)과 쇼와셀석유(자회사)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19.4.1일 합병 예정
* 최근 일본산 대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가세

○ **철강제품(5.1%↑)** :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 내 생산 감소, 자동차 및 건설용 강재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수도권 재개발을 위한 건설수요와 자동차 수출 등으로 인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신일본제철주금)
  . 9월 홋카이도 지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생산 감소, 폭우로 인한 신일본제철 나고야제철소 및 JFE스틸 서일본제철소에서의 출하 감소 등
* 한편, 2019년에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부문에서의 철강 수요도 2018년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철강연맹)

○ **일반기계(6.1%↑)** :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일본 내 수요가 견조하고 업종별로도 정부 쪽 수요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대비 플러스가 되는 등 산업기계 수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조세 (일본 산업기계공업회)
*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 부분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한국산 제품 도입을 선호하는 추세임. (후지산업주식회사)

○ **자동차부품(2.6%↓)** : 일본 완성차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기존 모델 부품 수요 감소 및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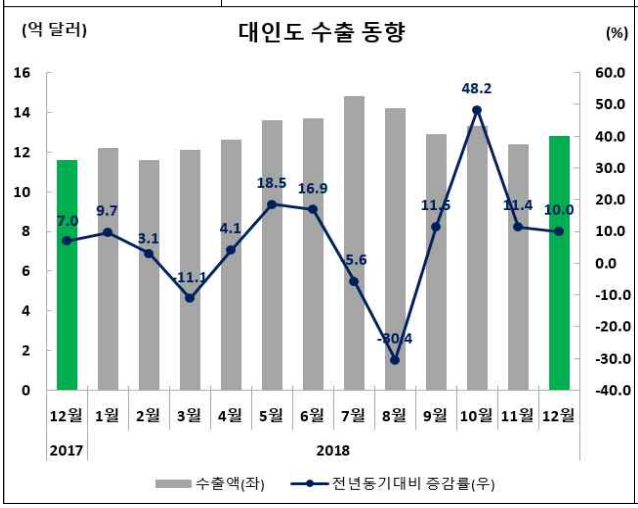
* 2020년 신규 모델 출시에 대비하여 기존 모델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부품 수요도 감소
  . 다만, 신규모델에 채택된 서플라이어의 경우 수출량 증가 기대
* 한국 자동차산업 불경기 여파로 부품 메이커의 매출 및 자금보유 상황이 악화되면서 납기 등 고객사 납품에도 악영향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 (료산) / (미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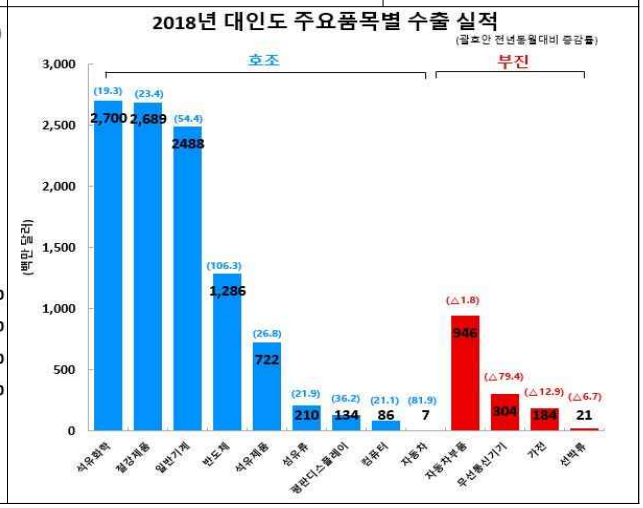
□ (특이동향)

○ 2019년 일본의 주요 통상·경제 이슈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명 TPP11) : 일본 주도로 '18.12.30일 발효, 한국·태국·영국 등 참가국 확대 협상 시작 예정
* 일-미 TAG(상품무역협정; Trade Agreement on goods) : '19.1월 중순 이후 협상 실시 예정
* 일-EU EPA : '19.2.1일 발효 예정
* G20 정상회담 : '19.6월, 오사카 개최 예정
* 기타 : '19.10월, 소비세 인상(현행 8% → 10%) 예정

인 도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1~12.31)	누계(1.1~12.31)	
	12.8(10.0)	156.1(3.7)	2.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경상수지 적자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강화 추세이나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생산·교역 호조, 고용·물가 안정 등으로 2018년에도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對인도 수출은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부품수입 확대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활성화에 힙입어 철강·일반기계·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품목별 동향)** 석유화학·철강·일반기계·반도체·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 증가,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가전·선박류 수출은 감소

○ **철강제품(23.4%↑)** : 제조업·자동차 산업 성장, 인프라 투자 확대,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인프라 건설과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인도 내 철강 수요량 꾸준히 증가
.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7조 루피(약 100조원)을 배정
. 2018년 4-11월 기간동안 전체 자동차(이륜·삼륜차 포함)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2.53% 증가
* 세계철강협회(WSA, 10월)는 2018년 인도의 철강 수요증가율을 기존 5.5% → 7.5%로, 2019년은 6% → 7.3%로 상향 조정
* 인도정부가 철강제품 수입관세율 상향 조치를 검토하면서, FTA 협정이 체결된 한국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 선호 경향이 나타남.

○ **일반기계(54.4%↑)**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인도 내 제조설비투자 확대,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인도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증가세
*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각각 공장 증설과 신규건설에 나서면서 관련 기계설비와 건설장비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성도 마하라슈트라에 4천만 달러 규모의 스판덱스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부문으로부터 기계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장비 부문 수입증가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H건설기계)

○ **반도체(106.3%↑)** : 스마트폰 현지 생산량 확대로 메모리반도체 등 부품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휴대폰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며 지난 4년 동안 120개의 휴대폰 공장이 설립되었음. 이에 인도 내 스마트폰 출하증가율은 2017년에 전년비 14%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두 자리 수의 성장이 예상됨.
  . 삼성, 샤오미와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인도 내 공장을 신·증설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18.7월 세계 최대 규모의 노이다 공장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연 1.2억대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임.
* 인도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전자 순수입액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현지 생산 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PMP(Phased Manufacturing Program) 정책을 시행함은 물론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완성품과 주요 모듈의 관세를 지속 인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완성품과 모듈 위주의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메모리반도체 등 부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무선통신기기(79.4%↓)**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관세 인상('18.2월과 10월) 등 수입제한 조치 영향으로 수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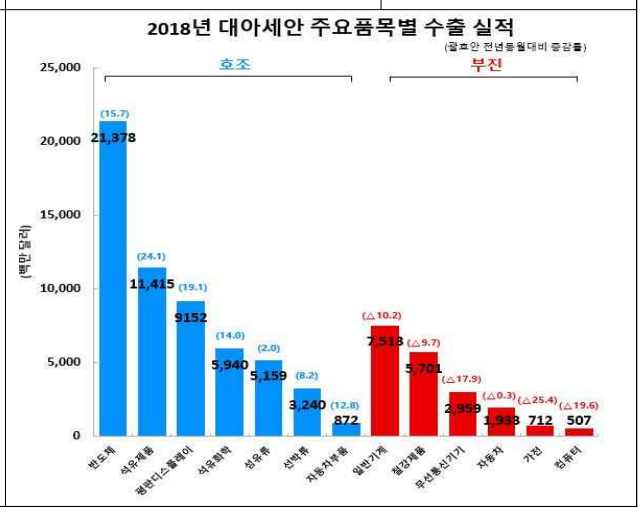
현장 정보

* 인도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전기전자기기 및 제품에 대한 관세를 꾸준히 인상해 왔는데, 2018년 들어서는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악세서리, 통신기지국 등의 기본관세율을 10-20%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완제품의 수입수요가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수요로 전환되고 있음.

□ (특이동향)

○ 2018년 12월 인도 5개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도국민당) 패배, 2019년 4월 총선에서 재집권 노리는 모디 정부의 압도적 승리 전망은 불투명

ASEAN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85.5(2.8)	1,002.4(5.2)	16.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주 : 베트남 포함 실적

□ **(2018년 동향)** 미중 무역 분쟁, 외환 리스크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경제통합(AEC) 심화 및 FDI 유치 활성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對ASEAN 수출은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수출 호조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1,002.4억 달러)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제품·평판디스플레이·석유화학·섬유류 등의 수출 증가, 일반기계·철강·무선통신기기·자동차 등의 수출은 감소

○ **반도체(15.7%↑)** :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현지 한국기업의 부품 수요 증가, 주요국의 ICT·가전 분야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인도네시아)** 가전과 무선통신기기의 현지 생산 활동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특히 2018년 인니 정부가 4차산업 육성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발표해 스마트시티 및 그린에너지 분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반도체 수요도 증가 (인니 산업부)

* **(말레이시아)** 스마트폰·태블릿 시장 회복 및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세

* **(베트남)** 갤럭시 A7, A9 등 한국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메모리반도체 등의 수입수요 증가

○ **석유제품(24.1%↑)** : 상반기 고유가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 역내 경제성장과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인도네시아)** 2018년 상반기 발릭빠빤 정유공장 대형사고 및 정비 등으로 내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수입수요가 대폭 증가했음.
  . 한국산 휘발유의 수요는 여전이 높은 편이나,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B20(공공·민간 분야의 교통/중장비/방산장비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소 20%는 바이오 디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법)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입수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PT Pertamina)
* **(말레이시아)** 2018년에는 유가 상승과 수요 상승이 맞물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2019년에도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Petronas Chemicals Group Bhd)
* **(싱가포르)** 2018년에는 전년대비 높은 유가로 인해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미국발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제품(14.0%↑)** : 아세안 제조업 경기 호조로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 수입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 성장 속도를 석유화학제품 공급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한국 포함 해외로부터 합성수지 및 정밀화학제품의 수입 증가
  .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등의 수요 대폭 증가
  .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인니의 Chandra Asri사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한국의 롯데케미컬도 현지 유화단지 조성에 착수
* **(베트남)**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석유화학제품 소비가 늘면서 최종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수요 증가

○ **철강제품(9.7%↓)**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축으로 철강제품 수요도 축소돼 수출 부진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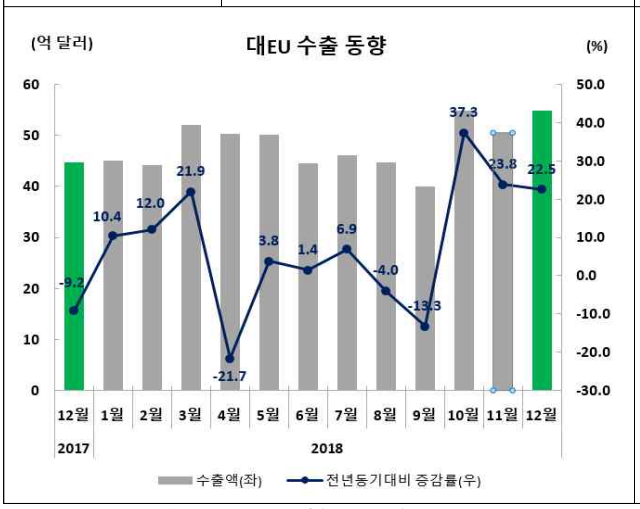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2018년 하반기 인니 정부의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연기, 철강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한 사전수입승인 규제, 루피아 환율급증에 따른 구매 축소 등의 영향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감소함.
* **(말레이시아)** 일부 프로젝트들이 취소·축소되면서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전체 철강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임. (POSCO Malaysia Sdn B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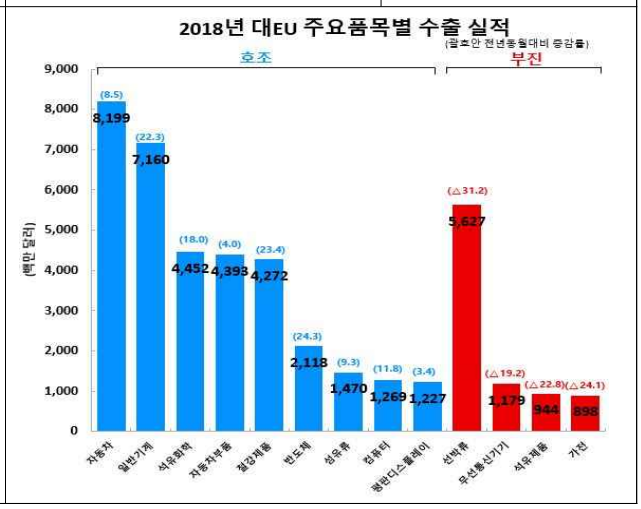
□ (특이동향)

○ 롯데케미컬, 인도네시아 내 유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 진행('18.12.7)

* 인니 반텐주에 약 47만㎡의 부지사용 권한 획득해 기본 설계 마친 상태, 2023년부터 양산 예정

E U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54.8(22.5)	576.8(6.7)	9.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고용상황 개선, 설비 가동률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對EU 수출은 현지 소비 회복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 영향으로 자동차·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6.7%의 증가율 달성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철강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선박류·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가전 수출은 감소

○ **자동차(8.5%↑)** : 소비 회복에 따른 신차 판매 증가,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수요 확대, 신형 SUV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핀란드)** '18.9월부터 시작된 '19년형 모델에 대한 프로모션으로 판매 증가. 동 프로모션이 종료되는 '19.1월까지 판매 증가 기대
* **(이탈리아)** 수출 단가 높은 신차 SUV(기아 스토닉) 판매 증가로 전체적인 수출 증가
* **(네델란드)**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서유럽 지역에서 수소전기차(현대 넥쏘 등)에 대한 수요 및 판매 증가로 수출 호조
* **(스웨덴)** '18.7.1일부로 발효된 Bonus-mallus 정책(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형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에는 보조금 지불) 영향으로 Niro, Optima, Soul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호조

○ **일반기계(22.3%↑)** : 경기 회복세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계설비·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프랑스)** 2024년 파리올림픽 특수, 그랑 파리(파리 광역 교통망 및 주거지 확충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계설비 및 부품 수요 지속 증가세
  . 건설 중장비, 압연기, 원동기, 운반하역기계, 공구, 베어링, 전동축 및 기어 등의 수입 지속 증가
* **(폴란드)** 폴란드산 기계는 수동 공작기계가 대부분이며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첨단 기계는 외국산 기계수입이 많은 편이며, 특히 한국 제조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증가하면서 폴란드 공장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생산기계 및 설비들이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 **철강제품(23.4%↑)** : 현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 증가, 對미 고관세 부과 이후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벨기에)** '18.7월 EU차원에서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쿼터이상 물량에 대해 25% 고관세 부과)로 한국산 철강제품을 조기 수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아울러 한국 업체들도 쿼터소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수출량을 확대함에 따라 연말까지 철강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영국)**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호조세
* **(스페인)**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 및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냉연강판 등과 같은 철강판에 대한 수요 증가세

○ **선박류(31.2%↓)** : 전년도 수출 호조(81.8억 달러, 48.1% 증가)의 기저효과, 선박 및 조선기자재 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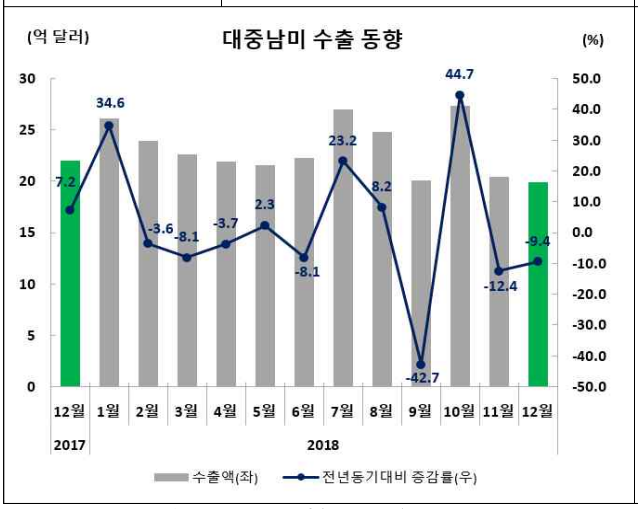
* **(덴마크)** 덴마크 선주사의 선박 오더에 대한 인도가 마무리되는 '18년 하반기 이후 대폭 하락세는 예견된 상황이었음. '19년에도 선박 분야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분야 선박 기자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16년부터 지속되어온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 부진이 수출 감소로 이어짐.
  . 일부 전문가들은 '1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해운경기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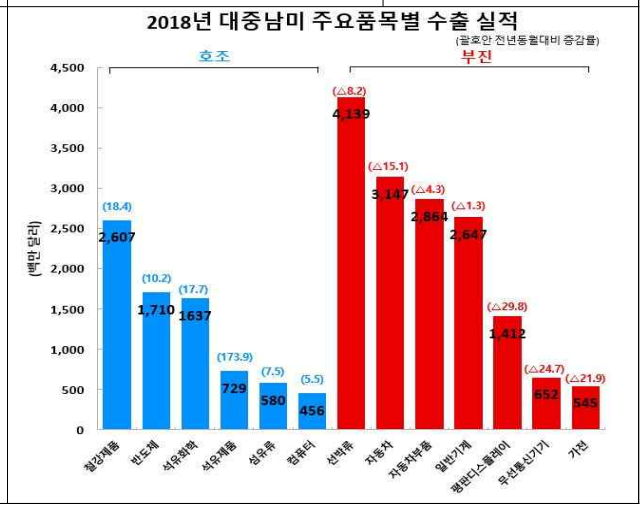
□ (특이동향)

○ EU, 1년여 논쟁 지속된 자동차 CO_2 감축 목표 최종 합의안 발표('18.12.17)

* 자동차 CO_2 배출 규제 목표 : 2030년까지 승용차는 2021년(연평균 CO_2 배출량 95g/km까지 허용) 대비 37.5% 감축, 소형상용차는 2021년 대비 31% 감축, 2019년부터 초과 g당 95유로의 벌금 부과

중남미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19.9(△9.4)	277.9(△1.1)	4.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아르헨티나·멕시코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역내 주요국의 고용 및 물가 안정, 내수 및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2018년 對중남미 수출은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차부품·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소폭의 소율(△1.1%) 기록

□ **(품목별 동향)** 선박류·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감소, 철강·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

○ **자동차(15.1%↓)** :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음에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유통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18년 11월 누계 기준, 현대자동차 판매량 45,525대, 기아자동차 판매량 85,917대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0.2%, 9.3% 증가

* **(브라질)** 환율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18년 자동차 수입수요 대폭 하락했으며, 무관세 수입 가능한 멕시코·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

* **(콜롬비아)** 달러 환율 상승 및 높은 세금 부담으로 수입 자동차 구매 수요 감소

○ **자동차부품(4.3%↓)** :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비중 증가, 저가의 중국산·인도산 제품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멕시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활동 본격화로 인해 부품 현지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USMCA 협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자동차 부품이 역내 생산 제품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져 향후 부품 수입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달러 가치 대폭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중국 및 인도산 부품 수요 확대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이 감소

○ **평판디스플레이(29.8%↓)** : 제품 단가 하락, 중국산 제품 점유율 확대,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멕시코)** 중국의 LCD 생산 확대로 인한 단가 하락 및 중국산 제품 수요 증가
  . LCD 수출 단가 : (55인치) '17.11월 117달러 → '18.11월 156달러로 약 11% 감소
  (65인치) '17.11월 340달러 → '18.11월 241달러로 약 29% 감소
* **(브라질)** 현지 제품 생산 확대로 수입 제품의 수요 감소
  . 월드컵으로 TV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현지 생산되는 60인치 이하 패널을 사용한 것이며,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60인치 이상 대형 패널을 사용한 TV 제품의 판매는 부진 지속

○ **철강제품(18.4%↑)** : 對韓 철강 수입쿼터 증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자동차 생산 확대, 제조업·건설업 분야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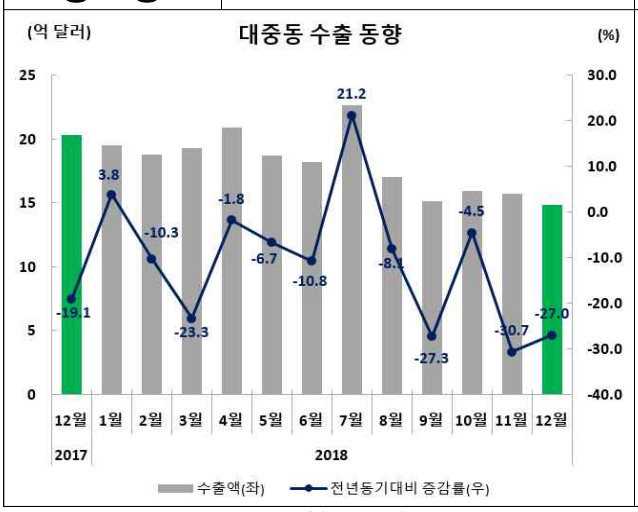
* **(멕시코)** 기아자동차의 현지 생산량 증가 및 '18년 對한국 냉연강판 수입쿼터 확대가 철강제품 수출 호조세를 견인
  . '18년 11월 기준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은 274,5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2.6% 증가
* **(브라질)** 자동차 산업 회복 및 건설업 경기 호조로 철강제품 수요 증가
* **(콜롬비아)** 인프라·건축 프로젝트 확대로 철강 수요 증가, 미중 관세전쟁으로 중국산 대신 한국산·인도산 수입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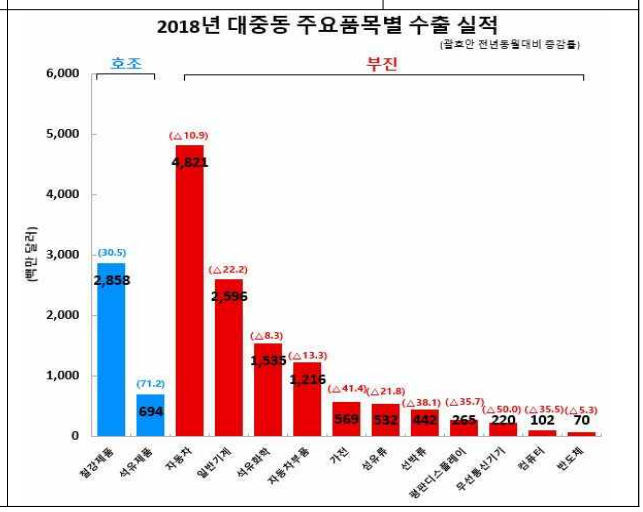
□ (특이동향)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18.12.20일에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하여 8.25%로 조정

* 이로써 멕시코는 2018년에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됐는데, Banxico는 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후발적 조치로 평가됨.

중 동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14.8(△27.0)	216.2(△11.3)	3.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카타르 단교사태, 시리아·리비아·예멘 내전 등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 對중동 수출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영향으로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2년 연속 감소율(△11.3%)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가전·섬유류 등 11개 품목의 수출 감소, 철강·석유제품 수출은 증가

○ **자동차(10.9%↓)** : 완성차 수출 중단(對이란, 8.7일부), 외국인 근로자 이탈에 따른 소비 감소(사우디·UAE)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UAE)** 2015-2017년 지속된 저유가로 상당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철수하여 자동차 구매 수요 자체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며, '18.1월부터 도입된 부가세도 차량 구매 감소 초래

* **(사우디)** '18.6월 여성 운전 허용으로 신차 구매 증가 예상되었으나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기회복 둔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 정책들(외국인 근로자 가족부양세 등)로 많은 외국인이 이탈(2016년 이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이탈)하여 차량 구매 수요가 대폭 감소

* **(이란)**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국내해운사의 이란행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9월 이후 수출 실적 전무

○ **일반기계(22.2%↓)** : 對이란 제재 여파 및 유가 변동성 확대로 프로젝트 중단·지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사우디)** 2018년 상승세를 지속하던 유가가 4분기에 급락하면서 재정상황이 다시 악화되자 신규 프로젝트 발주 중단 및 프로젝트 재개 지연
  . 재정이 호전되더라도 신규 프로젝트 발주보다는 기존의 미수금 해결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기계류 수요는 당분간 감소세 지속 전망
* **(이란)** 일반기계의 경우 제재 대상 아니고 이란정부의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수요가 존재하나, 원화결제시스템 재개 지연으로 수출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UAE)**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 및 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되는 프로젝트 건수가 기대에 못 미쳐 기계류 신규 구매 감소

○ **석유화학제품(8.3%↓)** : 중동 내 생산량 증가 및 미국산 저가 폴리에틸렌 제품 대량 유입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사우디)**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 집중 육성 전략으로 수입수요 감소
  . Saudi Vision 2030에 의거, 사우디 정부는 산업다각화 및 수입대체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 추진
  . 국영석유회사인 ARAMCO는 SABIC, 쉐브론 등과 협업을 통해 원유 투입 후 중간 정제 과정 없이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OTC(Oil to Chemical) 설비 개발을 진행 중
* **(UAE)**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보르주(Borouge) 공장을 중심으로 폴리에틸렌 제품 생산 증가

○ **철강제품(30.9%↑)** : 정부 주도 건설 및 해상구조물 프로젝트 조달 관련 발주량 증가, 제품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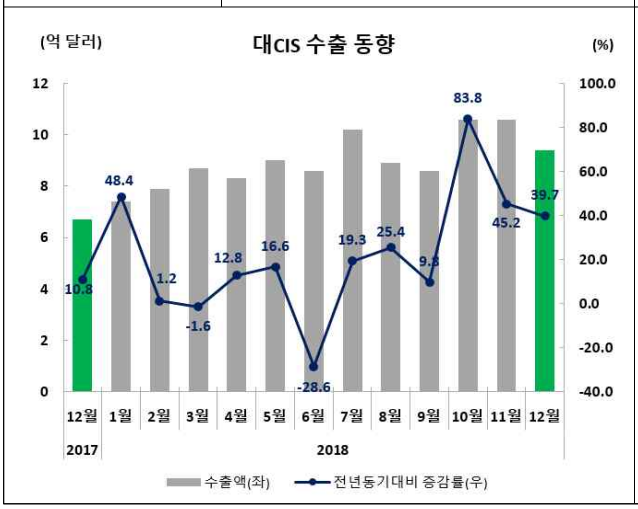
* **(UAE)** 두바이 정부 주도의 주거용 건설 프로젝트 및 아부다비 중심의 해상구조물 프로젝트 조달 관련 발주량 증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된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액 급증
* **(이집트)** 다수의 국가 주도 프로젝트 진행으로 철강 수요 지속 증가, 철강 파이프의 경우 현지 생산업체가 없는 실정이므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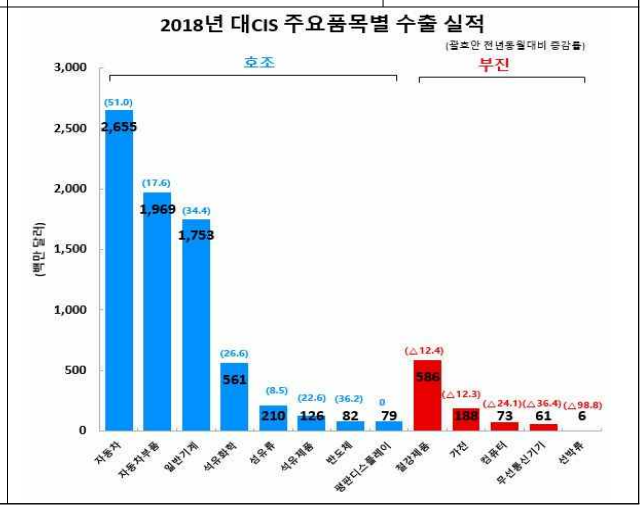
□ (특이동향)

○ 2019년부터 GCC 국가의 부가세(VAT) 도입 확대 예정

* UAE·사우디('8.1월)의 부가세 도입에 이어 바레인('19년 초), 오만('19.10월 중), 쿠웨이트('19년 말 혹은 '20년 중) 등이 2019년 중 5% 부가세 징수를 시작할 예정
* GCC로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타르는 VAT 도입 계획 자체가 불분명

CIS	수출실적 및 증감률(억 달러,%)		수출비중(연간)
	12월(12.1~12.31)	누계(1.1~12.31)	
	9.4(39.7)	108.2(17.5)	1.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년 동향)** 서방의 對러 제재 지속, 유가 변동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정책과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조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對CIS 수출은 주력품목인 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17.5%)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석유화학·섬유류·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 철강·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선박류 수출은 감소

○ **자동차(51.0%↑)** : CIS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 차량 조달 프로젝트(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카자흐스탄)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러시아)** '생애 첫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
  . '18.11월까지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10.1% 성장(신차 판매는 163만대)
  . '18.4분기에는 2019년 부가세 인상(18%→20%) 전 물량 확보를 위한 수입 수요 급증
* **(카자흐스탄)** 신차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정책과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소비 증가
* **(우즈베키스탄)** 캡티바, 말리부 등 중소형 차량의 수입 증가 및 청소차 납품 프로젝트에 따른 한국산 화물차 수입 증가

○ **자동차부품(17.6%↑)** :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확대(러시아·우크라이나) 및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부품 수입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러시아)** 동절기 자동차 정비 수요 증가 및 '19년 부가세 인상 전 재고 확보하려는 바이어들의 사전 구매 수요 급증
* **(우즈베키스탄)** GM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연간생산목표가 확대되면서 부품 조달벤더들의 수요도 급증
* **(우크라이나)** 애프터마켓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관련 부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일반기계(34.4%↑)** : CIS 국가들의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건설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러시아)** 제조업 공장 신규 설립 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로 일반기계 수요도 증가
*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정책으로 제조업 육성과 정부 보조금 지원 영향으로 제조기반 설비 수입이 크게 증가
* **(우즈베키스탄)** 대형 가스화학 프로젝트(GTL 등) 추진으로 한국으로부터 공기조절기, 가열난방기, 건설중장비, 밸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기자재 및 중장비 등의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

○ **철강제품(12.4%↓)** : 러시아 중심 현지 생산량 증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유입 증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종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러시아)** Severstal 등 러시아산 철강제품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선호
  . 2018년 1~8월 기준, 러시아의 철강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8% 상승한 반면,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며 강세를 보임.
* **(카자흐스탄)**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및 건축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철강제품 주문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건설 프로젝트 휴무로 철강 수입 감소

□ (특이동향)

○ 우즈베키스탄, 2019년 1월 1일부 관세 및 소비세 변경

* HS Code 74개류 447개 품목에 대한 관세 및 10개류 68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 변경 예정
* 자동차부품·일반기계·철강·가전·무선통신기기·농수산식품 등 251개 품목의 관세 면제
* 플라스틱제품·의료용품·화장품·의류 및 섬유류·종이류·목제품 등 160개 품목의 관세 인하
* 단, 승용차(중고 포함)·트랙터·소방차·화물차 등의 자동차는 관세 및 소비세 모두 인상
* WTO 정식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로, 세관 행정 및 시스템 개선 효과도 기대

참고 1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	'17년 전체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중국	142,120	13,381	11,523	13,577	13,035	13,852	13,817	13,726	14,403	14,593	14,770	13,567	11,914	162,158
	(14.2)	(24.4)	(3.6)	(16.5)	(23.1)	(30.0)	(29.4)	(27.2)	(20.9)	(7.8)	(17.4)	(△3.1)	(△14.0)	(14.1)
미국	68,611	5,160	4,682	6,079	5,942	6,153	6,421	6,152	6,048	5,821	6,981	6,847	6,449	72,736
	(3.2)	(4.4)	(△11.9)	(△2.0)	(△1.5)	(11.4)	(7.4)	(8.7)	(1.6)	(△11.8)	(47.7)	(7.3)	(21.8)	(6.0)
베트남	47,753	4,277	3,628	4,197	3,724	3,781	3,935	3,915	4,353	3,947	4,248	4,521	4,102	48,629
	(46.3)	(53.2)	(14.0)	(△3.1)	(△17.5)	(△9.0)	(△8.9)	(7.7)	(15.9)	(△16.6)	(9.9)	(2.5)	(1.1)	(1.8)
일본	26,816	2,584	2,446	2,603	2,483	2,514	2,579	2,542	2,410	2,469	2,774	2,718	2,452	30,574
	(10.1)	(21.3)	(19.6)	(8.7)	(17.8)	(15.2)	(9.7)	(17.6)	(14.4)	(△1.9)	(50.1)	(7.9)	(0.1)	(14.0)
인도	15,056	1,221	1,161	1,211	1,260	1,362	1,367	1,482	1,417	1,285	1,332	1,235	1,276	15,611
	(29.8)	(9.7)	(3.1)	(△11.1)	(4.1)	(18.5)	(16.9)	(△5.6)	(△30.4)	(11.5)	(48.2)	(11.4)	(10.0)	(3.7)
ASEAN	95,248	8,338	7,592	8,585	8,558	7,942	7,901	8,197	8,437	7,961	8,830	9,349	8,548	100,240
	(27.8)	(37.5)	(4.5)	(2.4)	(2.5)	(△2.2)	(△1.4)	(△1.8)	(11.9)	(△12.7)	(19.3)	(12.3)	(2.8)	(5.2)
EU	54,038	4,496	4,406	5,204	5,025	5,008	4,457	4,611	4,470	4,002	5,477	5,049	5,476	57,681
	(15.9)	(10.4)	(12.0)	(21.9)	(△21.7)	(3.8)	(1.4)	(6.9)	(△4.0)	(△13.3)	(37.3)	(23.8)	(22.5)	(6.7)
중남미	28,095	2,612	2,393	2,257	2,190	2,160	2,231	2,704	2,476	2,011	2,728	2,039	1,992	27,794
	(10.4)	(34.6)	(△3.6)	(△8.1)	(△3.7)	(2.3)	(△8.1)	(23.2)	(8.2)	(△42.7)	(44.7)	(△12.4)	(△9.4)	(△1.1)
중동	24,380	1,945	1,881	1,933	2,092	1,867	1,818	2,256	1,695	1,506	1,586	1,567	1,479	21,623
	(△7.0)	(3.8)	(△10.3)	(△23.3)	(△1.8)	(△6.7)	(△10.8)	(21.2)	(△8.1)	(△27.3)	(△4.5)	(△30.7)	(△27.0)	(△11.3)
CIS	9,209	739	794	870	834	896	864	1,015	890	860	1,062	1,062	938	10,824
	(33.7)	(48.4)	(1.2)	(△1.6)	(12.8)	(16.6)	(△28.6)	(19.3)	(25.4)	(9.8)	(83.8)	(45.2)	(39.7)	(17.5)
월별 총수출	573,694	49,222	44,524	51,312	49,851	50,689	51,082	51,815	51,184	50,649	54,887	51,575	48,379	605,169
	(15.8)	(22.3)	(3.1)	(5.5)	(△2.0)	(12.8)	(△0.4)	(6.1)	(8.7)	(△8.1)	(22.5)	(3.8)	(△1.3)	(5.5)

참고2 '18년(12월, 연간)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명 \ 품목명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제품	선박류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류	컴퓨터	가전
중국	당월 (증감률)	3,553 (△16.4)	1,103 (△11.4)	539 (△21.7)	1,737 (△13.1)	387 (△2.6)	85 (132.2)	1 (△71.9)	782 (△20.3)	192 (△37.6)	194 (△68.4)	152 (△13.1)	320 (20.7)	56 (△0.3)
	누계 (증감률)	52,210 (32.7)	13,500 (19.7)	9,121 (41.5)	21,797 (6.1)	4,519 (4.5)	502 (△38.4)	24 (△60.7)	11,565 (△22.0)	2,965 (△14.6)	4,088 (△34.9)	1,916 (△2.6)	3,509 (32.9)	575 (△20.2)
미국	당월 (증감률)	790 (239.9)	753 (16.2)	359 (89.8)	195 (△11.9)	281 (△3.7)	5 (205.9)	1,336 (22.8)	7 (△26.3)	474 (20.6)	354 (-)	119 (18.0)	120 (△44.9)	160 (1.9)
	누계 (증감률)	6,436 (90.6)	8,829 (18.6)	3,603 (15.7)	2,557 (20.6)	3,269 (△11.6)	86 (△77.7)	13,635 (△6.9)	110 (△10.1)	5,967 (5.3)	5,811 (△6.2)	1,433 (12.6)	2,366 (△0.6)	2,091 (△12.6)
베트남	당월 (증감률)	890 (2.8)	354 (6.0)	58 (△62.9)	178 (10.6)	123 (△26.5)	1 (△84.7)	101 (118.4)	880 (15.7)	54 (92.7)	177 (△24.2)	258 (△12.9)	13 (47.3)	32 (△10.2)
	누계 (증감률)	10,939 (18.5)	3,829 (△22.7)	1,980 (△0.4)	2,162 (16.5)	1,710 (2.8)	66 (32.3)	876 (2.8)	8,892 (21.0)	474 (23.2)	2,632 (△19.9)	3,100 (4.0)	126 (△53.8)	365 (△25.5)
일본	당월 (증감률)	82 (△24.7)	251 (4.1)	501 (7.4)	132 (△6.9)	331 (2.6)	6 (△69.8)	3 (17.0)	8 (△12.9)	66 (△3.1)	52 (2.1)	63 (3.6)	26 (6.2)	50 (△17.7)
	누계 (증감률)	1,238 (4.9)	3,098 (6.1)	5,236 (71.6)	2,146 (32.7)	4,080 (5.1)	108 (△59.3)	28 (△2.8)	107 (13.6)	912 (△2.6)	568 (△3.3)	821 (6.3)	327 (△1.5)	634 (10.5)
인도	당월 (증감률)	116 (188.0)	204 (29.9)	61 (17.7)	207 (5.4)	212 (21.8)	1 (161.6)	1 (161.2)	8 (48.3)	70 (△21.8)	11 (△83.3)	16 (△1.0)	8 (7.3)	30 (90.0)
	누계 (증감률)	1,286 (106.3)	2,488 (54.4)	722 (26.8)	2,700 (19.3)	2,689 (23.4)	21 (△6.7)	7 (81.9)	134 (36.2)	946 (△1.8)	304 (△79.4)	210 (21.9)	86 (21.1)	184 (△12.9)
ASEAN	당월 (증감률)	1,526 (△14.4)	667 (4.5)	982 (16.1)	449 (4.0)	403 (△15.0)	689 (92.1)	193 (31.6)	897 (16.3)	90 (50.0)	200 (△20.5)	423 (△12.0)	47 (22.0)	59 (△14.2)
	누계 (증감률)	21,378 (15.7)	7,513 (△10.2)	11,415 (24.1)	5,940 (14.0)	5,701 (△9.7)	3,240 (8.2)	1,933 (△0.3)	9,152 (19.1)	872 (12.8)	2,959 (△17.9)	5,159 (2.0)	507 (△19.6)	712 (△25.4)
EU	당월 (증감률)	170 (11.7)	608 (△4.7)	38 (306.5)	363 (9.0)	285 (△3.5)	1,229 (108.5)	785 (36.6)	92 (38.4)	349 (7.1)	92 (△23.8)	117 (△0.3)	77 (△35.5)	68 (△11.8)
	누계 (증감률)	2,118 (24.3)	7,160 (22.3)	944 (△22.8)	4,452 (18.0)	4,272 (23.4)	5,627 (△31.2)	8,199 (8.5)	1,227 (3.4)	4,393 (4.0)	1,179 (△19.2)	1,470 (9.3)	1,269 (11.8)	898 (△24.1)
중남미	당월 (증감률)	85 (△32.0)	229 (△10.2)	79 (43.6)	122 (12.5)	190 (15.4)	165 (△51.8)	216 (△28.7)	119 (15.5)	244 (10.0)	61 (74.6)	52 (13.5)	23 (△16.0)	33 (△31.9)
	누계 (증감률)	1,710 (10.2)	2,647 (△1.3)	729 (173.9)	1,637 (17.7)	2,607 (18.4)	4,139 (△8.2)	3,147 (△15.1)	1,412 (△29.8)	2,864 (△4.3)	652 (△24.7)	580 (7.5)	456 (5.5)	545 (△21.9)
중동	당월 (증감률)	4 (△38.5)	178 (△53.0)	43 (190.7)	88 (△38.4)	116 (△38.0)	13 (53.9)	457 (28.0)	18 (△0.2)	72 (△37.8)	12 (△74.0)	37 (△29.1)	6 (△70.3)	24 (△60.5)
	누계 (증감률)	70 (△5.3)	2,596 (△22.2)	694 (71.2)	1,535 (△8.3)	2,858 (30.9)	442 (△38.1)	4,821 (△10.9)	265 (△35.7)	1,216 (△13.3)	220 (△50.0)	532 (△21.8)	102 (△35.5)	569 (△41.4)
CIS	당월 (증감률)	5 (△8.7)	162 (33.9)	12 (10.5)	38 (5.8)	37 (20.5)	0 (30.7)	253 (116.0)	7 (12.2)	161 (30.6)	4 (△38.6)	14 (△3.8)	4 (△12.8)	16 (13.8)
	누계 (증감률)	82 (36.2)	1,753 (34.4)	126 (22.6)	561 (26.6)	586 (△12.4)	6 (△98.8)	2,655 (51.0)	79 (-)	1,969 (17.6)	61 (△36.4)	210 (8.5)	73 (△24.1)	188 (△12.3)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8,858 (△8.3)**	**4,456 (△1.4)**	**3,595 (6.3)**	**3,847 (△6.3)**	**2,490 (△3.7)**	**3,201 (26.4)**	**3,773 (27.0)**	**1,983 (△1.8)**	**1,789 (△0.3)**	**1,076 (△33.7)**	**1,125 (△7.9)**	**720 (△16.9)**	**550 (△11.8)**
	누계 (증감률)	**126,712 (29.4)**	**53,572 (10.2)**	**46,555 (32.9)**	**50,010 (11.9)**	**33,987 (△0.7)**	**21,271 (△49.6)**	**40,888 (△1.9)**	**24,680 (△9.9)**	**23,120 (△0.1)**	**17,099 (△22.6)**	**14,085 (2.5)**	**10,762 (17.3)**	**7,217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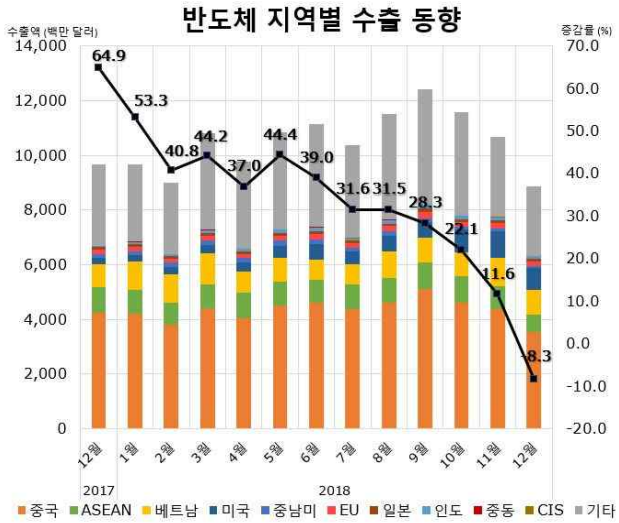
참고3 '18년12월 연간 지역별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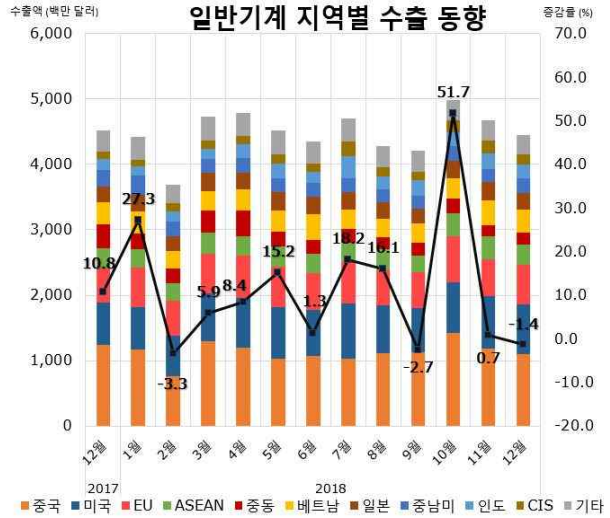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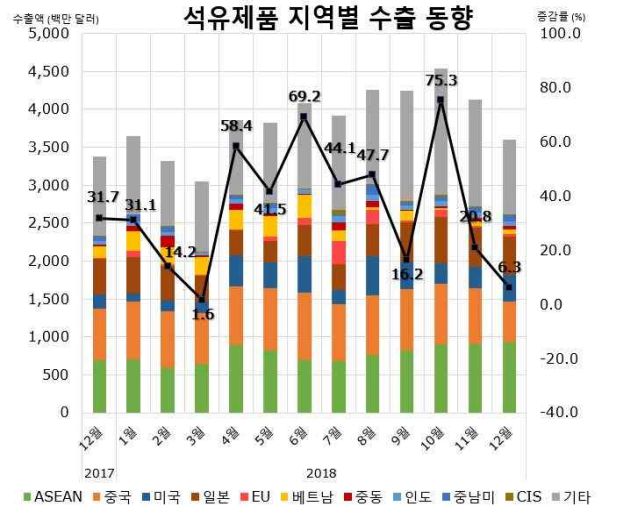
지역명 \ 품목명		유망소비재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OLED	SSD	MCP	
중국	당월 (증감률)	110 (6.7)	186 (△5.4)	24 (△35.7)	99 (△0.3)	45 (△3.5)	162 (△25.8)	123 (△28.0)	474 (△51.9)	50 (10.2)
	누계 (증감률)	1,301 (10.6)	2,663 (37.3)	251 (10.5)	1,197 (△15.5)	501 (8.5)	3,130 (△9.8)	2,247 (24.8)	6,491 (△5.9)	490 (16.9)
미국	당월 (증감률)	89 (10.1)	51 (30.0)	93 (301.4)	92 (7.0)	28 (2.5)	1 (14.2)	64 (△58.8)	12 (2,466.7)	54 (2.7)
	누계 (증감률)	956 (4.6)	543 (20.6)	443 (32.1)	1,189 (8.1)	339 (6.5)	13 (65.4)	1,665 (△5.9)	99 (△1.4)	593 (10.4)
베트남	당월 (증감률)	51 (32.4)	16 (△14.2)	15 (25.4)	42 (6.6)	55 (△7.2)	651 (27.2)	0 (△14.2)	161 (△36.6)	14 (△3.6)
	누계 (증감률)	517 (20.8)	169 (19.9)	139 (△8.3)	476 (10.5)	638 (9.3)	6,373 (33.6)	3 (△72.5)	2,228 (17.6)	96 (△3.2)
일본	당월 (증감률)	145 (△14.1)	24 (12.1)	31 (18.6)	54 (△12.0)	30 (△6.9)	6 (17.9)	7 (△40.6)	15 (△48.9)	19 (0.5)
	누계 (증감률)	2,027 (0.5)	303 (34.1)	279 (1.6)	719 (△4.9)	411 (△0.9)	72 (92.6)	127 (△1.3)	226 (8.5)	203 (5.4)
인도	당월 (증감률)	2 (△21.7)	1 (64.2)	5 (△8.0)	13 (△3.1)	0 (△43.7)	2 (212.0)	0 (26.5)	19 (76.3)	10 (△30.4)
	누계 (증감률)	19 (4.4)	12 (67.2)	42 (0.4)	171 (△89.4)	1 (10.5)	19 (118.5)	9 (104.6)	439 (140.3)	121 (6.5)
ASEAN	당월 (증감률)	130 (10.0)	53 (△1.6)	37 (7.0)	82 (4.2)	77 (△8.0)	654 (27.2)	22 (89.1)	177 (△34.6)	37 (△7.8)
	누계 (증감률)	1,590 (7.9)	675 (24.2)	375 (8.7)	1,024 (8.5)	905 (4.4)	6,453 (32.6)	223 (11.7)	2,464 (23.4)	345 (△1.4)
EU	당월 (증감률)	30 (△16.5)	21 (22.6)	57 (△62.9)	57 (4.7)	18 (△18.8)	25 (44.4)	41 (△46.6)	6 (△9.5)	58 (9.8)
	누계 (증감률)	388 (△2.9)	212 (38.9)	1,203 (11.1)	730 (10.9)	184 (6.9)	404 (△0.3)	888 (18.7)	130 (△3.4)	605 (13.8)
중남미	당월 (증감률)	14 (9.0)	3 (85.6)	27 (5.5)	28 (△4.2)	2 (△41.5)	18 (34.5)	17 (△11.3)	17 (△21.8)	16 (7.7)
	누계 (증감률)	145 (△0.6)	24 (92.2)	269 (△10.6)	352 (0.2)	18 (△12.1)	148 (△59.3)	367 (8.3)	306 (5.0)	157 (△0.3)
중동	당월 (증감률)	17 (△66.6)	4 (△6.4)	15 (4.8)	16 (△35.4)	3 (△18.9)	1 (△46.5)	0 (△71.2)	1 (△40.9)	20 (0.2)
	누계 (증감률)	354 (△38.8)	42 (16.5)	172 (56.3)	246 (△30.9)	26 (△25.4)	5 (△67.9)	10 (57.9)	15 (64.6)	239 (4.1)
CIS	당월 (증감률)	14 (△21.9)	20 (40.0)	3 (△48.5)	22 (9.6)	1 (△28.8)	1 (55.1)	2 (103.6)	1 (85.1)	26 (74.6)
	누계 (증감률)	219 (2.9)	211 (67.5)	50 (4.1)	294 (10.6)	12 (△20.1)	6 (67.5)	35 (101.2)	18 (66.7)	206 (42.6)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670 (△5.6)**	**457 (△4.4)**	**351 (△6.1)**	**526 (△2.8)**	**222 (△6.9)**	**870 (12.6)**	**335 (△39.3)**	**1,447 (△46.7)**	**316 (4.6)**
	누계 (증감률)	**8,314 (1.7)**	**6,277 (26.6)**	**3,718 (17.3)**	**6,792 (△15.5)**	**2,605 (4.2)**	**10,301 (11.7)**	**7,141 (20.1)**	**23,239 (1.0)**	**3,25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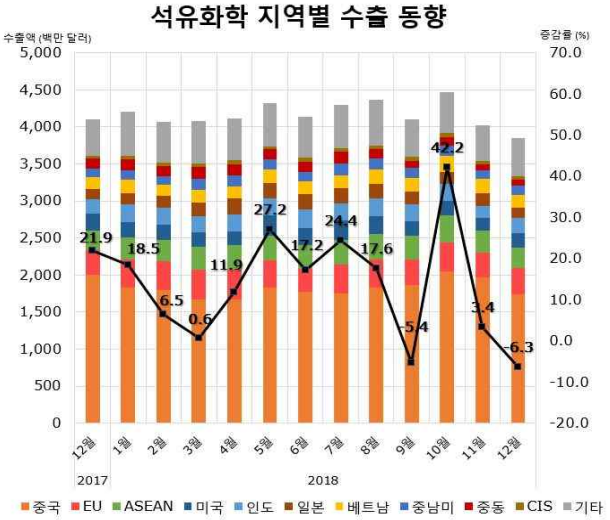
참고4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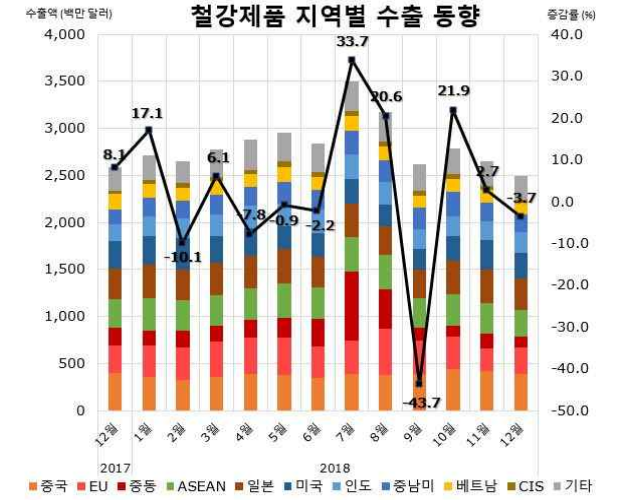
(ASEAN은 베트남 제외된 수치, 증감률은 품목별 총수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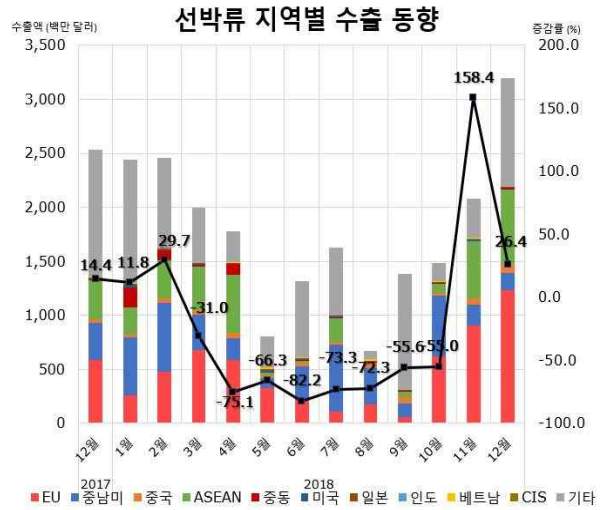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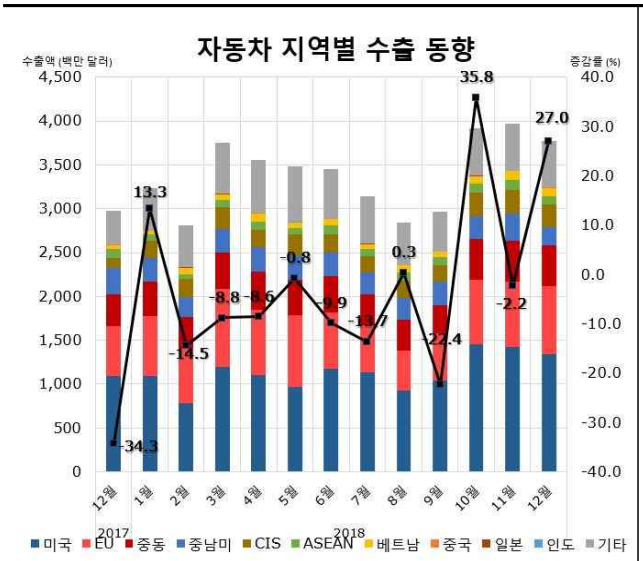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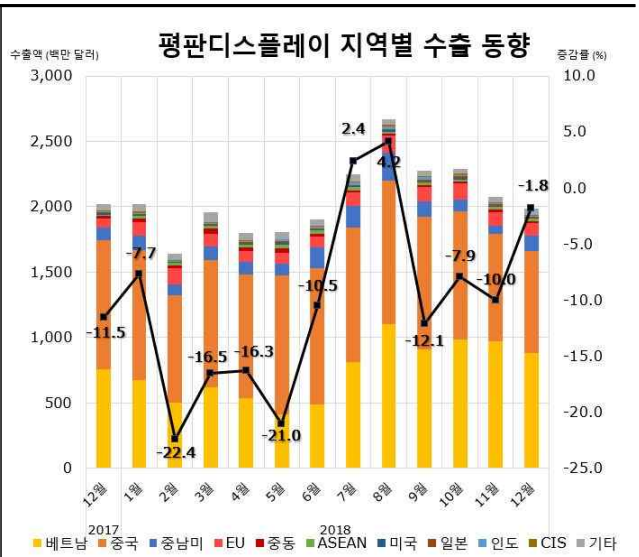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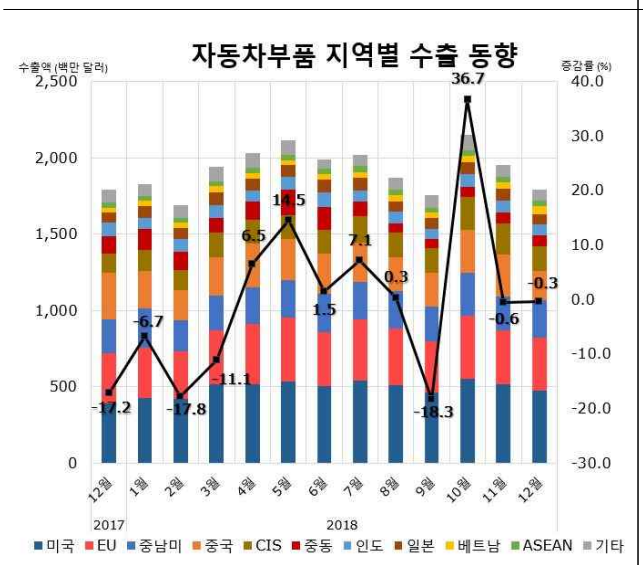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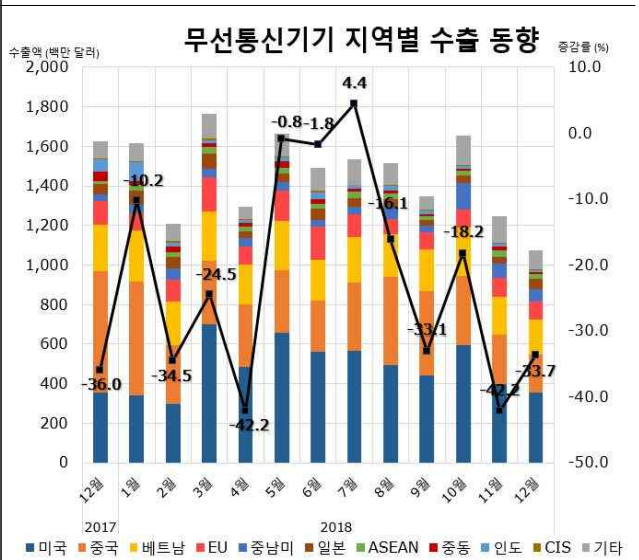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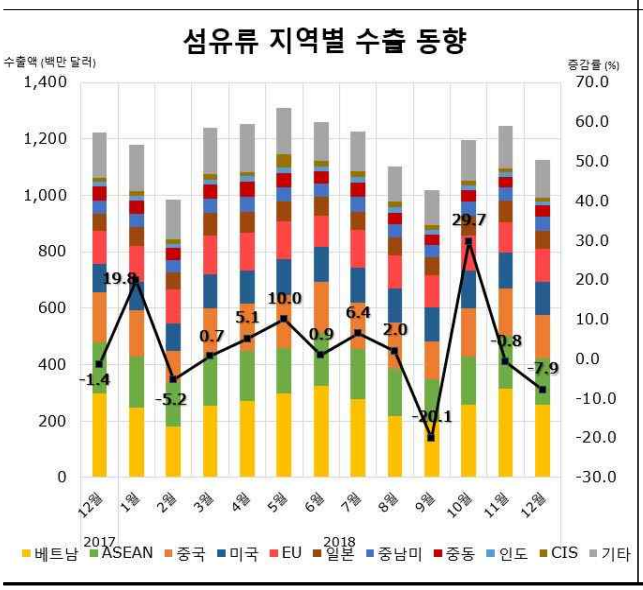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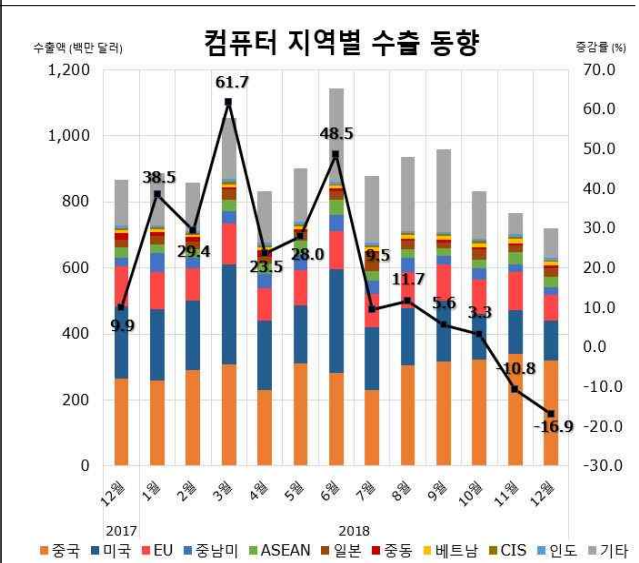

자동차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미국 EU 중동 중남미 CIS ASEAN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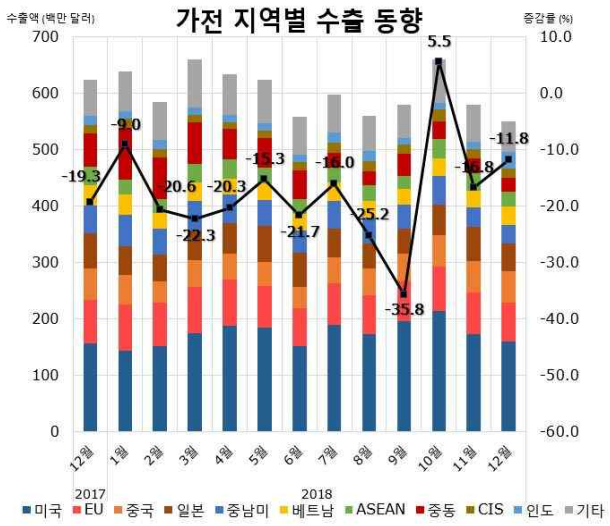

평판디스플레이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베트남 중국 중남미 EU 중동 ASEAN 미국 일본 인도 CIS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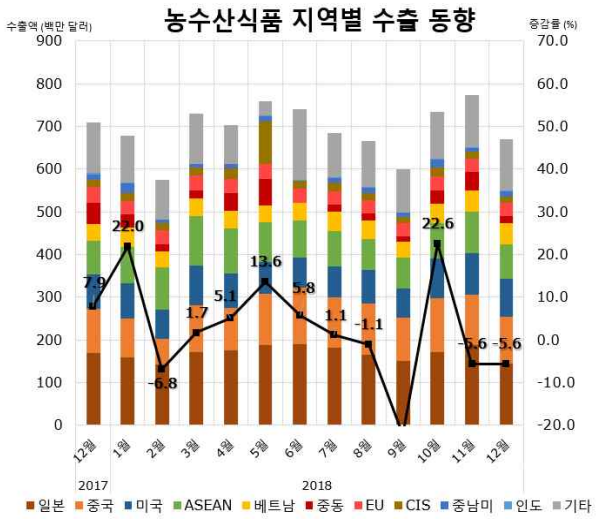

자동차부품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미국 EU 중남미 중국 CIS 중동 인도 일본 베트남 ASEAN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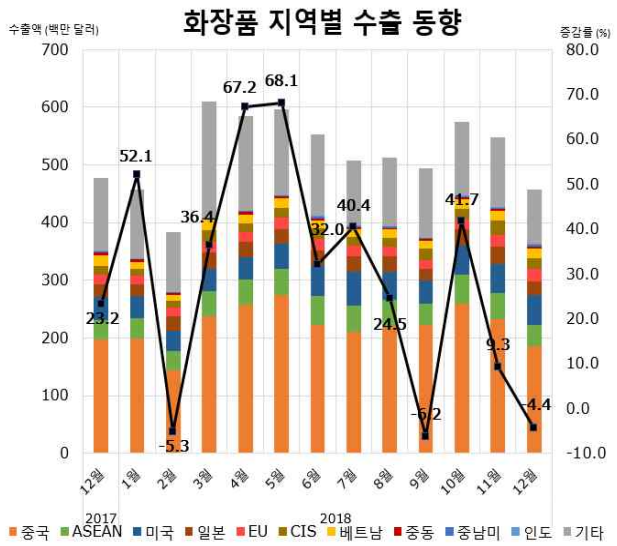

무선통신기기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미국 중국 베트남 EU 중남미 일본 ASEAN 중동 인도 CIS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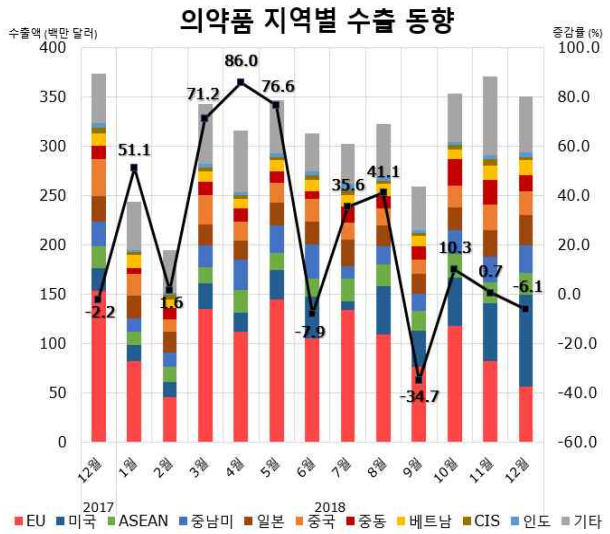

섬유류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베트남 ASEAN 중국 미국 EU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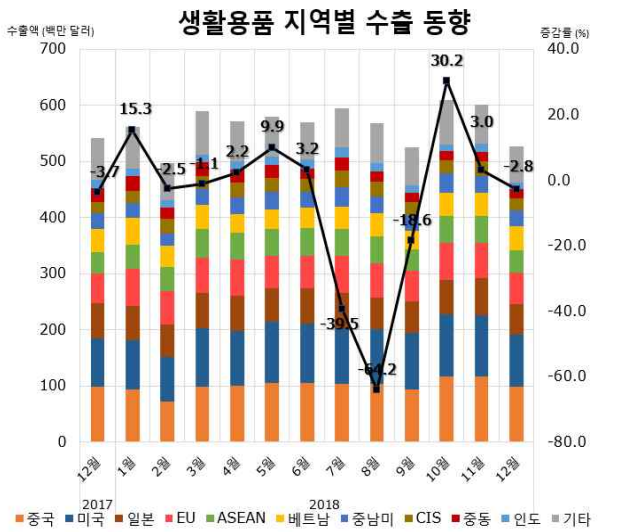

컴퓨터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중국 미국 EU 중남미 ASEAN 일본 중동 베트남 CIS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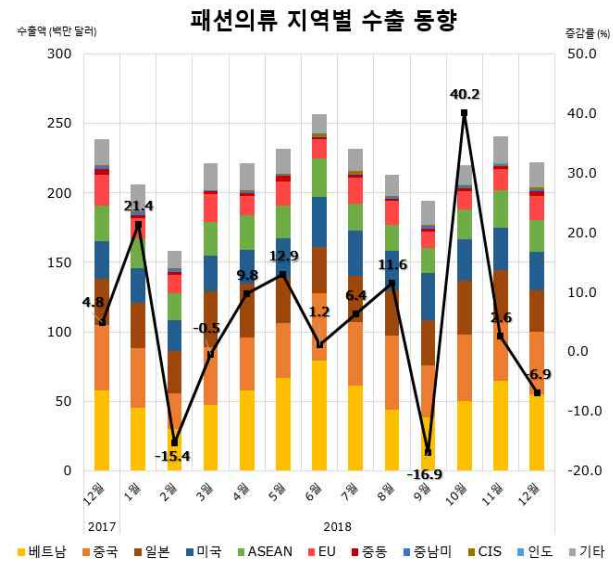

가전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미국 EU 중국 일본 중남미 베트남 ASEAN 중동 CIS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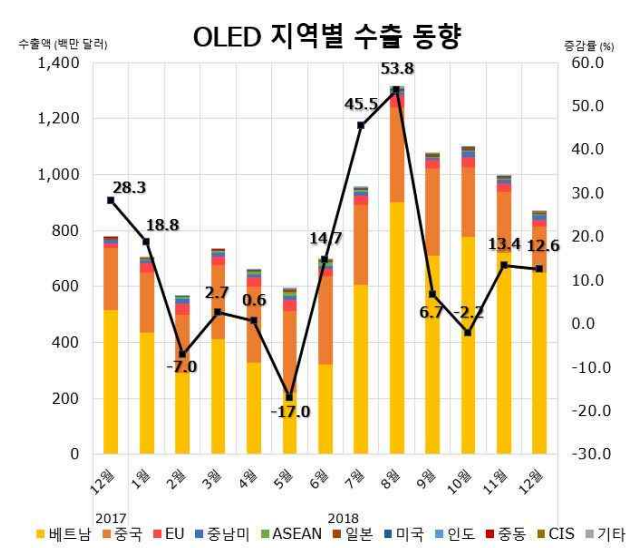

농수산식품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일본 중국 미국 ASEAN 베트남 중동 EU CIS 중남미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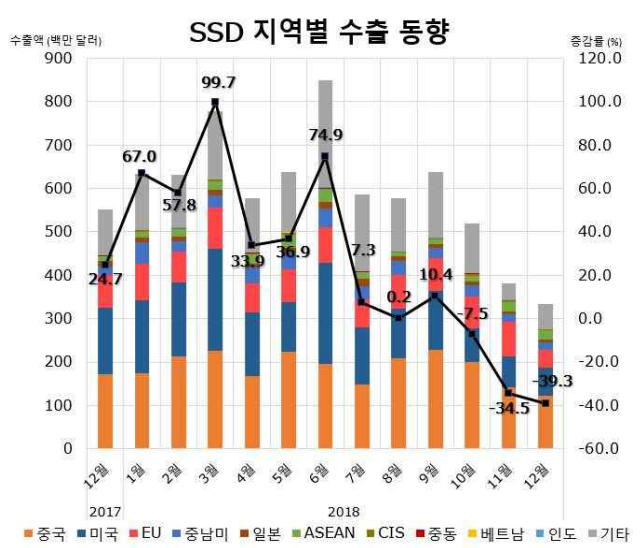

화장품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중국 ASEAN 미국 일본 EU CIS 베트남 중동 중남미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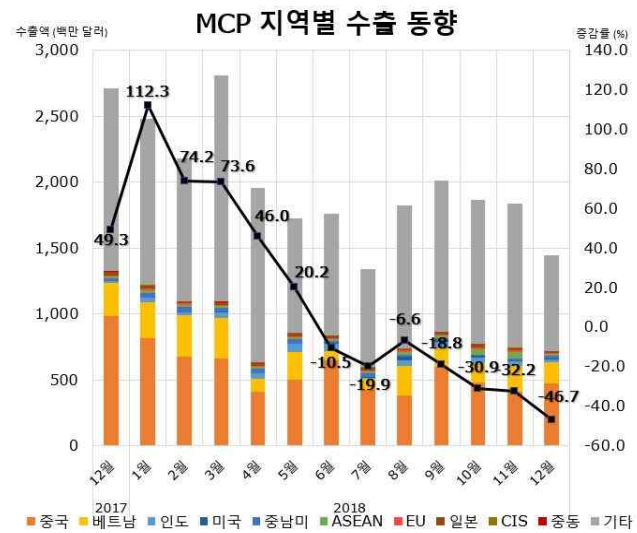

의약품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EU 미국 ASEAN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 베트남 CIS 인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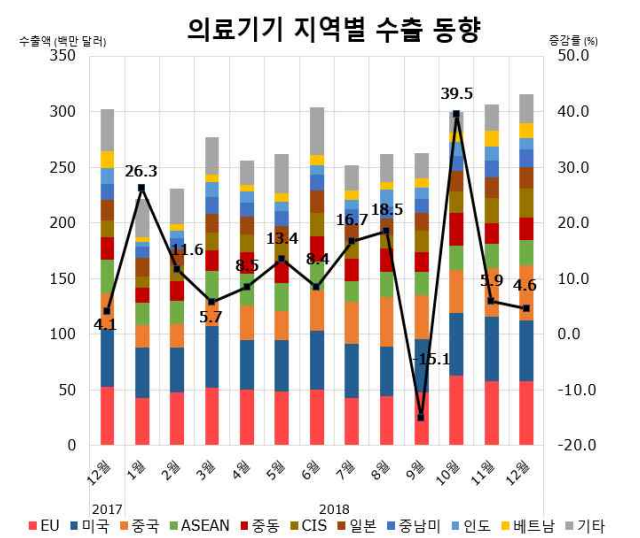

생활용품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베트남 중남미 CIS 중동 인도 기타


패션의류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17
2018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ASEAN EU 중동 중남미 CIS 인도 기타


OLED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8.3
18.8
-7.0
2.7
0.6
-17.0
14.7
45.5
53.8
6.7
-2.2
13.4
12.6
2017
2018
베트남 중국 EU 중남미 ASEAN 일본 미국 인도 중동 CIS 기타


SSD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4.7
67.0
57.8
99.7
33.9
36.9
74.9
7.3
0.2
10.4
-7.5
-34.5
-39.3
2017
2018
중국 미국 EU 중남미 일본 ASEAN CIS 중동 베트남 인도 기타


MCP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49.3
112.3
74.2
73.6
46.0
20.2
-10.5
-19.9
-6.6
-18.8
-30.9
-32.2
-46.7
2017
2018
중국 베트남 인도 미국 중남미 ASEAN EU 일본 CIS 중동 기타


의료기기 지역별 수출 동향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4.1
26.3
11.6
5.7
8.5
13.4
8.4
16.7
18.5
-15.1
39.5
5.9
4.6
2017
2018
EU 미국 중국 ASEAN 중동 CIS 일본 중남미 인도 베트남 기타

작성자

◈ 중국지역본부 이성호
◈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무역정보팀 김건숙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원준영
◈ 유럽지역본부 김선우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중동지역본부 오현탁
◈ CIS지역본부 최진형

Global Trade Report 19-001

2018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정보팀 (02-3460-7418)

ISBN : 979-11-6097-898-8 (9532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